풍력지구 지정전 파트너 선정 우려감 표출

사업자측 "불확실성 크고 절차 복잡" 문제 제기 도 "약속 이행 감시 차원… 우선시 해야 하는 가치" 어제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 2차 토론회 개최

터 운영까지의 사업 전 주기를 관

리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와 특수

목적법인을 설립하는 등 '합동 개

발'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또

합동개발방식이 단순 자본금 투자

만이 아니라 인허가 절차 이행과

주민수용성 등을 제주에너지공사

가 담당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하도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오후 농어업 인회관 대강당에서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에 대한 2차 토론회 를 개최했다.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 개 선(안)'은 그동안 발의된 주요 의 견들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공공에 서 풍력자원 개발 적합입지를 사전 발굴하는 내용과 제주에너지공사가 개발에서 운영까지 전주기 사업관 리가 가능하도록 합동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당초 개정 고시안은 제주에너지 공사를 풍력사업예비시행자로 지 정하고, 도내 풍력개발을 주도했던 기존 방식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민간사업자도 사업시행자가 돼 직 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제주에너지공사에게 '풍력 자원 공공적 관리기관' 역할을 새 롭게 부여해 민간에서 풍력발전사 업을 추진하는 경우 공공성 사전 검토, 추진단계별 상황 관리·이행, 주민수용성 등을 중점 관리하도록 했다.

특히 제주에너지공사가 개발부

록 해 '사업시행자 내부'에서 풍력 개발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사업자측 한 토 론자는 "풍력발전지구 지정 이전에 사업자를 공모하면 사업성의 불확 실성이 너무 크다"며 "사업자들에 게 매력이 없고 절차가 복잡해 진 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제주도는 시작부터 마무리 까지 약속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차원에서 3차례의 심의 과정이 필요하며, 이는 행정에서 우선시 해야하는 가치라고 말했다.

제주자치도는 1.2차 토론회 결과 를 바탕으로 조례·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제주에너지공사 관계자는 "풍력 발전지구 인·허가 권한을 민간한테 넘겨 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됐던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 수정안은 풍력발전지구 지정전에 민간 파트 너를 미리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것 이다. 공사는 조직과 예산에 한계 가 있어 사업 추진이 다소 더딘 문 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해소하게 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9일 오후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에 대한 2차 토론회가 열렸다.

이상국기자

민주당 균형발전위 발족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 특별위원회는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특위 발족식을

획이다. 국회=부미현기자

외국인 근로자 종합서비스 지원 확대

사업비 4억7000만원 투입

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지역사회 조기 적응을 위해 총 사업비 4억7000만원을 투 입하고, 제주도 외국인근로자지원 센터의 외국인근로자 종합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센터는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상담 ▷쉼터 ▷교육 ▷홍보 ▷네트워크 등 5개 분야의 8개 사업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조기 적응을 지원한다.

우선 외국인근로자 유입 증가에

대비해 대면·전화·온라인 등 상담 창구를 다변화하고 외국인근로자 대상 7개국어(영어, 중국어, 네팔 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캄보 디아어, 필리핀어) 상담과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또 '찾아가는 상설상담소 운영' 을 기존 4개 지역에서 5개 지역(한 림읍, 대정읍, 성산읍, 서귀포시 동 지역, 추자면)으로 확대해 원거리 지역에서 농·축산·어업에 종사하 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지원을 위 한 현장 밀착 방문 서비스를 제공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근로자 쉼터 운 영'을 통해 단기간 머물 곳이 없는 피해 외국인근로자 보호를 위한 숙 박 제공과 맞춤형 상담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도내 거주 외국인근로 자의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한국문화학교'를 운영해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 및 체험 활동을 제 공하고, '외국인주민 대상 제주문 화이해 교육' 및 '외국인근로자 자 조모임' 활동 등을 지원한다.

외국인근로자는 센터를 통해 생 활고충은 물론, 출입국, 임금체불, 고용, 산업재해, 의료 등 전문 상담 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고대로기자

'행복 서귀포시' 생애단계별 특화교육

교육협력 플랫폼·진로축제평생학습박람발표회 신규 운영 학교 예체능 프로그램 비중 70% 상향… 학생 참여 극대화

올해 시정 목표를 '청정 건강도시. 행복 서귀포시'로 잡은 서귀포시가 사회구성원의 생애단계별 건강 증 진을 위한 특화교육을 확대한다. 특히 교육협력 플랫폼과 진로축제 평생학습박람・발표회 등 신규 사업 을 전개해 학생들의 참여를 극대화 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8일 서귀포시교육청에 서 첫 '교육협력 플랫폼 실무위원 회 회의'를 갖고 교육협력 플랫폼 운영 방안을 논의, 기관간의 협의 를 통해 협력사업 발굴에 적극 나 설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시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 포시교육발전기금 등과 협약해 교 육협력 플랫폼을 통한 학생건강. 맞춤교육, 진료교육, 생태환경 등 4 개 분야에 대한 사업을 본격 운영

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학교에서 이뤄지는 예체능(몸 건강, 마음 건 강) 프로그램 비중을 지난해 62% 에서 올해 70%로 상향·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협조를 구했다.

이와함께 시는 기존 시민건강 교 육프로그램 12개를 올해 건강식 만 들기, 플라멩코 등을 포함해 20개 로 대폭 확대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27일 개최한 교육협력 플랫폼 운영 협약 식을 통해 미래 사회구성원인 학생 들의 건강을 위한 '몸 건강 마음 건강 토탈케어'를 올해 중점의제로 채택했다"며 "교육협력 플랫폼의 성공적인 추진과 관련 협력사업의 성과가 속도감 있게 실행될 수 있 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제주더큰내일센터 탐나는인재 8기 선발

만15~34세 청년 대상 오는 15일부터 3월 7일까지 모집 최대 21개월간 취·창업 역량 강화 위한 교육훈련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더큰내일센터는 이달 탐나는인재 8기를 선발한다.

모집 기간은 2월 15일부터 3월 7 일까지이며, 대상은 공고일 기준 만15~34세 청년이다.

야의 취업 및 창업 실현을 희망하 는 청년) 60명 내외, 디지털분야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취업 및 창업 실현을 희망하는 청년) 15명 내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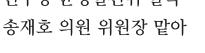
2023년 교육과정은 ▷ (1단계-기 본교육, 3개월) 기본역량향상을 위 한 교육 운영 ▷(1단계-심화교육, 3개월) 2단계 연계 취업 업(業)프 로젝트 및 창업・디지털 분야 교육 ▷ (2단계-진로경험, 3개월) 취·창 업 실습 연계 ▷(3단계, 12개월) 취·창업 실현이다.

선발된 참여자에게는 최대 21개 월간 취·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체 계적 교육훈련, 맞춤형 진로 설계

및 전문가 멘토링 지원, 도내외 기 업 연계 실무 실습을 거쳐 취·창업 연결로 이어지는 프로그램이 제공 된다. 또 센터 프로그램에만 집중 할 수 있도록 월 150만 원 상당의 모집 인원은 일반분야(다양한 분 훈련수당 및 프로젝트 비용이 지원

> 제주더큰내일센터는 기존 탐나 는인재 교육과 함께 도내 일반 청 년 대상 진로·직무 프로그램을 신 설하고 다양한 진로 모색, 직무교 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제주더큰내일센터 프로그램을 통 해 청년의 직무경험 및 경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고 취·창업 연계를 지원해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 기를 기대한다"며 "탐나는인재 8기 모집에 도·내외 청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올해 신설하는 도내 청년 진로 · 직무 프로그램에도 많은 관심 을 바란다"고 말했다.



가졌다.

이날 발족식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특위 위원장을 맡 은 송재호 의원(제주시갑), 조오섭 간사 등 민주당 의원 20여명이 참 석했다. 특위는 앞으로 윤석열 정 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점검하고 지방소멸 해법을 담은 정책을 정 리해 내년 총선 공약에 반영할 계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효소당밀

썩음병, 균핵병 예방 잡초의 경감 PH(산도)교정 석회효과 페르키 효과 연작장해 토양 소독 살균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김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마늘·더덕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YouTube 석회질소 검색

달팽이추출물 <u>물질</u> 펄빅산 토양의 pH를 맞춰주는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역할, 양분용탈을 방지하고, 100% 수용성 비료 주며, 양분의 저장고 역할과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효과를 연장시켜줌 15-3-5+특수물질8종 Cocoly 얇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염류집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율 상승 및 냉해, 건조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Powerful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바실러스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왁스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키며 심근을 유도하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용량: 20kg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NAVER Dom 코코리 검색 **농가작업인부 지원**(과수원 밭작업)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등]: 745-8900, H.P: 010-9258-7508





사라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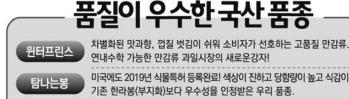
제라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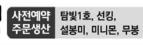
미국에도 2019년 식물특허 등록완료! 색상이 진하고 당햠량이 높고 식감이 우수. 껍질 표면이 매끈하면서 두께가 얇으며 기존 천혜향보다 과육 밀도가 높으며, 2월 중하순 성숙하며 과즙이 풍부하면서 고유의 향기가 있음

조숙 온주밀감으로 기존 궁천조생보다 같은 시기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아 11월 고품질 감귤을 생산 출하할 수 있는 품종, 함량 및 높아 향기가 진한 레몬 품종 내한성이상대적으로 강한 걸로 평가되는 품종. 소과형(30a내외) 감귤로 당도가 매우 높으며,기존 품종과는 차별화된 고품질 품종

과수농가 보급품종(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 궁천, 흥진, 카리향, 산화홍(붉은색 감귤)

가정원예(조경수)(2~7년생) 하귤, 팔삭, 세미놀, 금귤, 당유자, 아마나스 미니몬, 국내산 탱자묘목 판매(신교병 03-0182-2020-3)

*제주한라농원감귤류묘목전시판매장개정!! ❖ 1년생 규격묘, 2~5년생 일반묘, 포트묘, 화분묘 분양



제주한라농원은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이며, 우수신품종을 농촌진흥청

국유품종보호(통상실시권)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판매하는 종묘전문업체입니다.

, 제주한라농원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10-4736-2479 / 010-6500-232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1번길1(수산리735)